

완주 곳곳 숨은 매력 책에 담아

문화·예술·풍경·사람·먹거리·살거리·즐길거리 등 담은 여행 가이드북 '트립플 완주' 출간

완주군(군수 박성일)의 다양한 매력이 가득 담긴 여행 가이드북이 출간됐다.

지난 26일 완주군과 이지앤북스(대표 송민지)는 트립플러(트립플 시리즈 책 애독자) 10여명을 초청해 완주군 삼례책마을 문화센터에서 '트립플 완주'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완주군과 트래블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출판사인 이지앤북스(EASY&BOOKS)가 손잡고 완성여행 가이드북을 선보인 것.

지난 해 9월 이지앤북스와 완주군은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작가가 약 6개월 동안 완주 곳곳을 여행하며 찾은 숨은 매력이 한권의 책으로 탄생된 것이다.

책에는 법정문화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완주의 문화와 예술, 완주의 풍경과 사람들,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등을 젊은층의 시선과 감각으로 담아냈다.

출간기념회에는 책에서 완주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등장한 청년활동가 10여명도 함께 자리했다.

이지앤북스 송민지 대표는 "그간 해외의 주요 도시 위주의 여행가이드북을 출간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단절돼 국내 도시로 대상을 전환했고, 작년 제주시를 시작으로 이번 완주군을 2번째로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하는 6개월 동안 완주를 채우고 있는 다채로운 사람, 공간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완주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정경자연, 고품격 문화,



지난 26일 완주군과 이지앤북스는 트립플러(트립플 시리즈 책 애독자) 10여명을 초청해 완주군 삼례책마을 문화센터에서 '트립플 완주'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건강한 먹거리를 자랑하는 감성여행도시 완주의 모습을 색다른 시선으로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완주 여행길에 '트립플 완주'와 함께하면 더욱 완벽하고 매력적인 여행길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트립플 완주'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잘찬리에 판매 중이다.

한편 도서출판 이지앤북스는 국내의 여행가이드 '트립플', '이지' 시리즈 총 34권을 출간해 베스트셀러로 여행 마니아들에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여행콘텐츠 라운지 '늘 NEUL' 공간을 운영하며 독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완주=이종복기자



김미디어무브의 '공간(空間)' 작품.

김미디어무브, 아트체인지업상 수상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서 '공간' 작품 우수성 인정 받아

2020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인 김미디어무브가 성과공유회에서 '아트체인지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미디어무브의 '공간(空間)' 작품은 농촌 지역의 방치된 공간, 사라져 가는 공간에 대한 아쉬움과 애뜻한 심경을 즉흥적인 몸짓으로 표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3회 추경 신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 총괄을 담당하고 전국 17개의 시·도 광역문화재단이 참여해 지역 특성 맞춤형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사업이다. 우수작에 대한 심사는 1,874명의 국민 모니터

링단과 24명의 예술현장 전문가 평가단이 참여, 3단계 모니터링 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그 중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팀에게 아트체인지업상을 수상하고 탕당 500만원이 수여됐다.

김미디어무브 김선이 대표는 "아트체인지업상 수상은 30년 동안 공연예술에 집중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것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같은 느낌이었다"며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예술 활동이란 어쩌면 좀 더 친밀하게 예술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영원한 빛의 화가 모네와 인상파 레플리카 체험전'

군산예술의전당 2·3전시실서 4월 3일~5월 19일
모네·반고흐 등 인상주의 작품 50여점 만날 수 있어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따뜻함과 섬세함이 느껴지는 인상주의 작품 50여점이 군산예술의전당 2·3전시실에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시된다.

이번 전시 '영원한 빛의 화가 모네와 인상파 레플리카 체험전'은 빛과 색채의 마법사라 불리는 '클로드 모네'와 그의 영향을 받은 인상파작가(빈센트 반고흐, 오귀스트 르누아르 등)의 작품을 레플리카로 선보이며 총 6가지 색선 전시와 모네의 수련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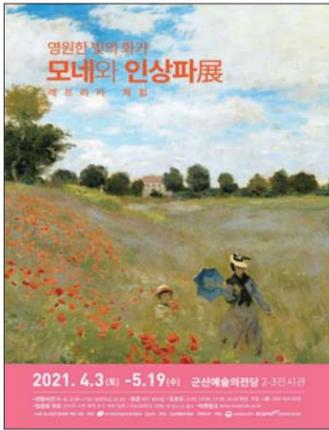
특히 평일, 주말 하루 4회씩 도슨트(전문 안내인)의 설명 시간을 마련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온라인 전시관도 함께 운영해 설명을 놓친 관객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도록 했다.

영원한 빛의 화가 모네와 인상파 레플리카 체험전은 무료관람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를 통한 사전 인터넷 예매를 진행(예매우선·현장입장가능)해 20분당 10명씩으로 입장을 제한해 안전한 관람환경을 유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unsan.go.kr/arts)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군산=남현봉기자



남원시립어린이국악단 창단 단원 모집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 판소리 분야 20명 선발

남원시는 동편제 판소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국악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남원시립어린이국악단을 4월중 공식 창단할 계획으로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남원시 소재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판소리 분야 20명 정도를 선발하고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4월 10일 실기와 면접심사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합격자를 1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어린이국악단은 관리교사 책임 아래 다양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시립국악단원과 외부 국악인을 지도교사로 위촉해, 주 2회 정기연습과 방학기간 등을 이용한 합동연습을 실시하는 등 기량을 연마, 연말 정기공연 및

시립국악단의 상설공연 등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지역축제 등에서 기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앞으로 남원시립어린이국악단은 지역민 및 관광객들에게 어린이 특유의 응골차고 멋스러움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여 함께 흥을 돋울 수 있는 국악의 맛을 보여 줌으로써 남원의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국악 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국악 꿈나무 육성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남원시 문화예술과(620-5743)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